

# 中國駐光州總領館期刊

제 5 호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소식지

JOURNAL OF THE CONSULATE-GENERA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IN GWANGJU



- 중국 주요 뉴스
- 총영사관 소식
- 중국 경제 무역 정보
- 신해혁명 100주년
- 중국공산당 창립 90주년
- 중국의 인권 사업
- 동북아 박람회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2011년 6월 편역·발행

<http://gwangju.china-consulate.org/kor/>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 중국 주요 뉴스



2월 9일, 세계 지적재산권 기구가 발표한 보고에 따르면 <국제특허협력공약> 등에서 2010년에 국제 특허 신청수가 4.8%가 증가하였고, 그

중 중국의 특허 신청량은 세계 4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국제특허 신청량은 2009년에 7,900건에서 작년엔 12,339건으로 증가하였고, 총 량이 미국(44,855건), 일본(32,156건)과 독일(17,171건)의 뒤를 이었다.



2월 27일 오전, 전국 인대·정협 회의를 앞두고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정부넷과 신화넷(新華網) 상에서 네티즌들과 온라인 교류를 진행하였다. 원자바오

총리는 12차 5개년 계획기간에 우리는 사회를 더 발전시키고 국가경제와 국민생활면의 큰 문제들을 해결하여 국민 생활이 안정되며 미래에 대해 신념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자바오 총리는 연 3년째 네티즌들과 온라인 교류를 진행했다.

4월 11일, 중국 국가여유국(旅遊局)은 “중국관광의 날” 발표회에서 2011년부터 매년 5월 19일(《취샤커여행기(徐霞客遊記)》 창작날)을 “중국관광의 날”로 지정 발표하였다. 취샤커(徐霞客)는 명나라 때의 위대한 여행가, 지리학자, 사학자, 문학자였다. <취샤커여행기(徐霞客遊記)>는 중국의 지모지질을 고찰하는 지리명저일 뿐만 아니라 중국 자연 풍경 자원을 그려내는 거작이라 국내·외에서 깊고 큰 영향을 가지고 있다.



4월 14일, 제3차 브릭스(BRICS) 정상회담이 하이난성 산야시(三亞市)에서 거행되었다. 후진타오 중국국가주석과 브라질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인도 총리, 남아공대통령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의 주제는 “미래에 대한 전망, 함께 누리는 번영”였다. 후진타오 주석은 연설중에 보다 발전이 지속적이고 사회가 더 조화로우며, 제도가 진일보 개혁되고 더욱 개방된 중국이 13억 중국인민의 복지 증진에 이로우면서도 세계의 평화와 발전에 큰 공헌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4월 24일, 칭화(淸華) 대학교 설립 100주년 경축 행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성대히 거행되었다. 중국 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인 후진타오가 이 행사에서 중요한 연설을 하였다. 그는 소강사회(小康社會)건설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은 원대한 포부를 지니고 있는 청년학생들에게

가 아름다운 인생을 창조하는 넓은 무대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청년학생들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높은 목표를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여 위대한 조국과 민족의 더 아름다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나아가야 한다고 격려했다.

4월 28일, 국가통계국의 발표에 따르면, 제6차 인구조사 통계결과를 보면, 전국 총 인구수는 1,370,536,875명이고, 그 중 남성인구는 51.27%를 차지하고, 여성인구는 48.73%를 차지한다. 도시 인구는 66,557만 명으로 총 인구의 49.68%를 차지하며, 농촌 인구는 67,415만 명으로 50.32%를 차지한다. 2000년 인구조사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도시인구의 비중이 13.4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주하는 인구 분배에 따라 인구 수는 순차적으로 광둥성(廣東省), 산둥성(山東省), 하남성(河南省), 사천성(四川省) 그리고 강소성(江蘇省)으로 나열된다.





5월 4일, 제26회 선전(深圳)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성화점화와 성화봉송 의식이 북경에서 거행되었다.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임위원, 국무원 부총리 리커창(李克強)이 성화를 점화하였고,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에 성화봉송의 시작을 선포하였다. 제26회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올해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선전에서 거행된다.



5월 9일, 제3차 중·미 전략 및 경제 대화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막되었다. 중국 국가주석 후진타오의 특별대표인 왕치산(王岐山) 부총리와 다이빙귀(戴秉国) 국무위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특별대표인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게이트너 재정장관이 이번 대화를 공동사회하였다.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대표단을 회견시, 왕치산 부총리는 중국과 미국의 경제관계가 이미 양자간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 갈수록 전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역사와 현실이 이미 증명했듯이 그 어떤 어려움도 중·미 협력의 박차를 가로 막을 수 없다. 양국은 이번 대화를 계기로 양국정상이 달성한 공동인식을 진지하게 실현하며 경제무역, 투자, 금융, 인프라 등 각 영역에서의 협력을 전면적으로 심화시키고 양국과 전세계경제의 강력하고 지속 가능하며 균형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표했다.

올해 1~4월, 가전하향(家電下鄉, 중국정부가 농촌지역에서 실시하는 가전 판촉 혜택정책) 제품 판매량은 3951.5만대에 달했으며, 판매액은 944.3억 위안이고, 전년 동기 대비 각각 91%와 128%가 증가했다. 그 중, 4월 판매량이 328.8만대이며 판매액 87.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1%와 12%를 감소했다. 2011년 4월말까지 가전하향 누계판매량은 1.54억대이며 판매액은 3360.3억 위안으로 정부보조금 누계 391.7억 위안을 배분했다. 품목으로 보면, 컬러텔레비전과 냉장고가 1,2위를 차지했고 함께 판매 총액의 58%를 차지했다. 지역으로 보면, 하남(河南)과 산둥(山東)은 판매액이 백억 위안 이상의 지역이고 합계가 225.9억 위안으로 전국의 4분의 1을 차지했다.



5월 20일부터 26일까지, 후진타오 중국공산당 총서기,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김정일 조선노동당 총서기, 국방위원장은 비공식 중국방문을 하였으며, 북경(北京), 흑룡강(黑龍江), 길림(吉林), 강소(江蘇) 등 지역을 고찰하였다.

후주석은 김정일과 회담시, 중국 당과 정부는 시종일관하게 전략적 고도와 장기적 입장에서부터 중·조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고 전통계승, 미래지향, 선린우호, 협력강화의 정신으로 중·조간 전통적 우의의 공고와 발전을 확고한 방침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김정일은 조·중 양국 인민의 우의는 매우 보귀한 것이라 우리는 이 우의를 대대로 전해 내려가야 하며, 이것은 우리의 증대한 역사적 사명이라 말했다. 조선반도 정세에 대하여, 후진타오

는 관련된 각 측은 계속하여 반도의 평화, 안정, 비핵화 입장을 지키고 진정·자제의 자세로 융통성을 보여줌으로써 장애요소를 없애고 상호관계를 개선하여 반도의 평화, 안정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주장한다고 하였다. 김정일은 조선인민이 현재 경제건설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어 안정적인 주변환경이 매우 필요하다고 전했다. 우리는 조선반도 정세의 완화를 희망하고 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유지하며, 6자회담의 조속 재개를 바라며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해 성의(誠意)를 갖고 있다고 표했다.

5월 22일, 제4차 중·한·일 정상회담이 일본 도쿄에서 거행되었고 원자바오 중국총리, 이명박 한국 대통령, 칸 나오토 일본 총리가 참석하였다. 원자바오 총리는 중·한·일은 동반자 관계가 맺어진 3년 이래 국제 금융위기, 자연재해와 복잡한 지역 및 국제정세의 시련을 겪었으며 서로 간의 소통이 강화되고 협력 영역이 확장되어 3국의 경제와 사회발전이 촉진되고 지역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있다. 3국은 공동 이익이 많은 운명 공동체임으로 함께 협력해야 호혜로 된다는 인식이 나날이 심화해진다. 이는 우리가 계속해서 손 잡고 앞으로 나아가갈 수 있는 중요한 기초이다. 우리는 반드시 신념을 확고히 하고 방해를 없애며 신뢰 증진, 협력 강화, 공동 이익 유지를 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안정과 번영을 촉진하겠다고 표했다.



## | 신해혁명 (辛亥革命) |

올해는 신해혁명 100주년이다. 신해혁명은 1911년(辛亥年) 중국민족혁명의 선구자이고 애국주의자이며 민족영웅 손중산(孫中山)의 지도와 그의 민주혁명정신 감화 아래 발발한 자산계급 민주혁명이다. 신해혁명은 청 왕조의 나날이 부패하고 제국주의 침략이 더욱 심화되고 중국의 민족자본주의가 초보적으로 성장하는 배경 아래 발발하였다. 이 혁명의 목적은 청 왕조의 전제 통치를 전복시키고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구하여 국가의 독립, 민주와 부강을 이루는 데에 있었다. 이 혁명은 2,000여년 동안의 중국 봉건제도를 전복했고, 아시아에서 첫 번째 민주공화국인 중화민국을 세웠다.



## | 증영시관소식 |

4월 14일, 주광주총영사관 손리민(孫利民) 등 영사들이 광주출입국사무소 김정숙 과장 등과 함께 업무교류회를 가졌다. 양측은 중한 양국 출입국관리와 외국인 거주 등록, 양국(국적법)의 차이 및 양국 호적과 결혼 등록 관리제도의 구분 등 문제에 대한 설명으로 진행되었다.



4월 27일부터 29일까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의 초청으로 4점정영(詹正永) 부원장이 중국 우한(武漢) 음악대학교 동방(東方) 교향악단 90명을 이끌고 광주를 방문하였다. 이 방문단은 전남대학교 예술대학과 광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공연을 펼쳤고 현지인들과 중·한 우호단체 책임자, 화교, 유학생 등 2,000여명이 관람하였다.



4월 30일, 전한국 중국학자학인연합회 전북지회가 주최한 2011 전북지역 중국유학생운동회가 원광대학교에서 개최되어 전북지역 5개 대학교 중국유학생 400여명이 이에 참가하였다. 중국주광주총영사 염봉란이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5월 4일, 중국 5·4청년절을 맞이하여 중국주광주총영사 염봉란이 우석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유학생들을 찾아보았으며, 학생들에게 청년절 축하와 위문을 전하였다. 그리고 이 학교의 공자아카데미를 방문하고 중국 교사들과 환담을 가졌으며 강철규 신임 우석대 총장과 만남을 가졌다.



5월 7일부터 11일까지, 강운태 광주시장의 초청에 따라 양려평(楊麗萍) 문화청장은 중국 허난성(河南省) 문화대표단을 이끌고 광주시 우호방문을 진행하여 광주시와 허난성 문화교류협력의향서를 체결하고 광주시에 중국어 도서를 증정하였다. 그리고 대표단은 광주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을 펼쳤다. 중국주광주총영사 염봉란과 강운태 시장 등이 이 행사에 참석하였다.



5월 12일, 한·중 문화협회 광주 지회 제10대 회장인 안상록 회장의 취임식이 광주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거행되었다. 광주시 강계두 부시장, 한중문화협회 이영일 총재, 장병완 국회의원, 염봉란 중국주광주총영사, 한중문화협회 고문, 이사, 회원 및 광주지역 화교와 중국유학생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5월 23일, 중국주광주총영사 염봉란은 제주 한라대학 공자아카데미를 방문하여 한라대학 김성훈 총장과 공자아카데미 신의경 원장과 만남을 가졌다.



# 중국공산당 창립 90주년



중국공산당은 1921년 7월1일 창립되어 올해로 90주년을 맞이한다. 중국공산당은 중국노동자계급의 선봉대이고 동시에 중국인민과 중화민족의 선봉대이며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사업의 영도핵심이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선진생산력의 발전요구, 중국선진문화의 발전방향과 중국 광대한 국민의 근본이익을 대표한다. 중국공산당의 최고 이상과 최종 목표는 공산주의 실현에 있다.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毛澤東思想), 등소평이론(鄧小平理論)과 3개 대표사상을 자신의 행동지침으로 삼고,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전국 각 민족과 국민들을 이끌고 단결하여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4개기본원칙과 개혁개방을 견지하여 자력갱생, 간고분투하여 중국을 부강, 민주, 문명, 화협(和諧)의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로 건설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1921년 7월, 상해에서 중국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열렸다. 대표대회는 중국공산당의 첫 번째 강령과 결의를 통과시켰다. 당 강령에서는 “당의 명칭은 중국공산당이다, 당의 성질은 무산계급정당이다, 당의 분투목표는 자산계급을 전복시키고 자본 소유 제도를 없애고 무산계급 전제정권 설립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당의 기본 임무는 노동자운동의 각 활동에 임하고, 노조와 노동자 운동에 대해 연구하고 지도한다.” 라고 규정되었다.



모택동(毛澤東, 전 중국 국가주석) 동지를 대표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마르크스레닌주의 기본원리와 중국혁명의 구체적 실천과 결합하여 전국민을 이끌어 몇 십년간의 간고분투로 항일전쟁의 승리와 내전 종결을 취득하여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웠다.

새 중국이 건립된 후, 중국공산당은 전 국민을 이끌어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내 경제구조를 조정하여 중국경제의 전면적인 회복과 신속한 발전을 이루었다. 당의 기본 준칙과 방침 지도 아래 중국은 계획성이 있는 경제건설을 대규모로 전개시켰는데 전국 대부분 지역이 기본적으로 생산수단사유제도를 사회주의소유체로의 전환 및 개조를 완성시켜 생산력발전을 추진시켰고 중국 사회주의 공업화의 초보적 발전기반을 다지게 하였다. 1956년에 사회주의개조가 기본적으로 완성되었다.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제11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기점으로 중국은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새로운 시기로 진입하였다. 등소평(鄧小平) 동지를 대표로 하는 중국공산당은 건국 이래 궁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의 경험을 총화하며, 사상 해방과 실사구시, 개혁개방 및 전당의 업무 중점을 경제건설으로 전환의 방침을 제시하였다. 등소평을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점차적으로 중국특색사회주의의 도로를 개척했다.

1989년, 중국공산당 제13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이래, 강택민(江澤民) 을 대표로 하는 중국 공산당은 중국 특색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사회주의가 무엇인지, 사회주의를 어떻게 건설하는지, 공산당의 모습이 무엇인지, 공산당을 어떻게 건설하는지에 대한 인식을 심화하여 공산당과 중국을 다스리는 소중한 경험을 쌓아 3개 대표라는 중요 사상을 형성하였다.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기 전국대표대회 이래, 당중앙은 등소평이론과 3개대표 중요사상을 지도로 견지하여 새로운 발전요구에 따라 전체 공산당원의 지혜를 집중하여 인본주의,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이란 과학발전관(科學發展觀)을 제출했다. 이 과학발전관은 마르크스레닌주의, 모택동사상, 등소평이론과 3개대표 중요사상과 일맥상통하고 시대에 따라 가는 과학이론으로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지도방침이며 중국특색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반드시 견지하고 관철해야 할 중요한 전략사상이다.

중국공산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의 대외관계는 국가 외교사업의 중요한 일환이다. 중국공산당은 각 국 정당과의 교류에서 독립자주, 완전한 평등, 상호 존중, 상호간 내정 불간섭 4가지 원칙을 준수하고 있다. 현재 중국공산당은 세계 140여개 국가와 지역의 400여개 정당, 조직과 교류를 하고 있다.

## ◎ 중국경제무역정보 ◎

### ◎ 1/4분기 전국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 이윤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전국 규모 이상의 공업기업은 10,659억원의 이윤을 달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32% 증가했고, 그 중, 국유 및 국유 지주기업은 3,648억원의 이윤을 달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24.6% 증가했다. 공동기업은 161억원의 이윤을 달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35.1% 증가했다. 주식회사는 5,966억원의 이윤을 달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37% 증가했다. 외국 및 홍콩 마카오 대만 상인의 투자기업은 2,924억원의 이윤을 달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했다. 개인기업은 2,691억원의 이윤을 달성하여 전년 동기 대비 50.2% 증가했다. 39개 공업업종 중 37개 업종의 이윤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고, 1개 업종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했고 1개 업종은 적자이다.

### ◎ 1/4분기 중국 경제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 3월 CPI 5.4% 상승

4월 15일 국가 통계국이 발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1/4분기 중국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 2.1% 증가했다. 3월분 CPI는 전년 동기 대비 5.4% 상승했고, 전분기 대비 0.2% 하락했다. PPI는 전년 동기 대비 7.3% 상승했고 전분기 대비 0.6% 상승했다. 이와 같이 고정자산투자는 25.0% 증가했고, 사회소비품 소매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3% 증가

했다. 도시와 농촌 주민 1인당 평균 소득은 실질적으로 7.1%와 14.3%가 각각 증가했다. 국가 통계국은 금년도 1/4분기 국민 경제가 안정을 유지하고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시작이 매우 좋다고 밝혔다.

### ◎ 중국 1/4분기 세수입 전년 동기 대비 32.4% 증가

중국 재정부가 발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전국 세수 총 수입은 23,438.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4%가 증가했다고 보여진다. 각 종류별의 세금 중에서도 수입부분의 세수가 비교적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수입품의 부가가치세, 소비세와 관세는 동기 대비 각각 48.8%와 47.5%가 증가했고, 합계된 증수액은 1437.1억원으로 세수 수입 증수액에 대하여 4분의 1을 초과하는 데 기여하였다.

이 밖에 부가가치세, 소비세, 영업세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2%, 21.5%와 26.3% 증가했고, 합계된 증수액은 2,326.9억원으로 세수 수입 증수 총액의 40.6%를 차지한다. 기업 소득세와 개인 소득세는 빠르게 증가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7.9%와 37%를 증가했고 합계된 증수액은 1,493.6억원으로 세수 수입 증수 총액의 26%를 차지한다.

세수 수입이 빠른 속도로 증가되는 주요 원인으로 첫번째는 경제의 안정적이고 비교적 빠른 성장과 기업 효과와 수익의 대폭 향상을 들 수 있고, 두번째는 대외무역 수입의 쾌속 성장 지속적인 유지 때문이다.

## ◎ 중국경제무역정보 ◎

### ◎ 1/4분기 수출입 총액 8천억 돌파 6년동안 처음 사분기 무역수지의 적자

해관총서(海關總署)가 발표한 통계수치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중국 수출입 총액은 8,003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9.5%가 증가했다. 그 중 수출은 3,996.4억 달러로 26.5% 증가하였으며, 수입액은 4,006.6억 달러로 32.6% 증가하였다. 국제시장의 대중 상품 가격 대폭 상승 등의 영향으로 10.2억 달러의 무역 적자가 나왔다. 작년 1/4분기의 흑자는 139.1억 달러였다.

국가별로 볼 때, 1/4분기 중국과 유럽 무역액은 1,237억 달러로 22% 증가하였다. 중미무역액은 976.5억 달러로 25% 증가하였다. 중일 무역액은 807.8억 달러로 27.1% 증가하였다. 중국과 아세안의 무역액은 793.4억 달러로 26.1% 증가하였다. 중한 무역액은 563.7억 달러로 24.5% 증가하였다.

### ◎ 중국내 철강기업 증가 이윤 고액 철광석에 잠식

보도에 따르면, 올해 국내 강재가격은 약 17% 증가하였는데 철광석 가격은 40% 증가하였다. 원가 상승폭은 강재 가격 상승폭을 많이 넘어섰다. 국내 철강생산 기업경영에 압력을 가져왔다. 1/4분기 철강협회 회원 기업의 판매 수입은 8,408억 원이며, 전년 동기 대비 26.95% 증가하였다. 그중 이윤은 약 24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88% 증가하였다. 철광석은 가격 상승과 동시에 중국철강업의 “고 생산량”도 역시 근심케 한다. 높은 생산량은 한 편으로 철광석 등 원료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철광석 가격의 증가를 초래한다. 다른 한 편으로 높은 강철 생산량은 경쟁과 강철 가격의 상승을 억제시킨다. 원가를 전가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높은 원가는 제강소 스스로의 부담을 가중할 수밖에 없다.

## 중국의 인권 사업

얼마 전 전위예술가로 알려진 중국인 아이웨이웨이(艾未未)씨는 탈세 등 경제범죄 혐의를 받고 중국경찰에 구속되었는데, 서방 몇몇 국가 정부와 인권기구는 재빠르게 나서 이에 간섭하여 중국이 인권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즉시 석방해 달라고 요구하였다. 제3회 중미전략경제대화 기간에 바이덴 미국 부대통령과 힐러리 국무장관은 오바마 정부가 현재 중국 인권에 주목하고 있고 특히 중국이 변호사와 사이트 작가, 그리고 인권보호 인사들을 구금하고 있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중국외교부 추이티엔카이(崔天凱) 부부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 인권사업은 지난 수십년 동안에 역사적 진보를 이루어냈으며, 누가 인권문제를 가지고 중국을 비난하는 것은 하루 이들의 일이 아니었지만 중국 인권사업은 하루하루 진보발전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말하였다. 5월 10일,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관련 문제에 대하여 어느 국가도 인권문제 앞에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으며 모든 국가에 다 적용되는 인권 정책과 패턴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 동안에 일부 한국 친구들도 소수 언론매체의 편파적인 보도에 치우쳐 현재 중국이 인권을 제압하고 박해하고 있다고 오해했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에는 인권이 존재하는가? 중국의 인권사업은 어떻게 발전해왔을까? 이 문제에 대하여 본지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것이다.

### 1. 중국 현대 인권 사상

중국 정부와 국민은 자신의 역사와 국정에 의하여 국제인권 활동과 대외 인권투쟁에 관련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인권의 보편성과 중국 역사, 문화 그리고 현실의 특수성을 결합시켜 중국특색사회주의 인권관을 형성하였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인권의 보편성 원칙은 반드시 각국 국정과 결합되어야 한다. 인권의 보편성이란 첫 째는 인권의 주체, 즉 인권은 한 나라나 사회의 모든 국민이나 구성원이고 민족, 인종, 성별, 언어, 종교, 정치관, 국적, 사회출신, 재산, 문화수준과 상관 없이 모두

가 누려야 하는 권리이며 모든 민족과 국가가 다 누려야 하는 자유와 평등의 권리이다. 두 번째로는 인권의 원칙과 내용의 보편성이다.

(2) 인권은 국민의 정치적 권리 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개인의 인권 외에 단체의 권리도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은 경제, 사회, 문화 권리와 공민권(公民權), 정치권은 인권체계 중 분리할 수 없는 두 개의 부분이라 보고 있다. 공민권과 정치권은 국민 인격 존엄과 충분한 인권 실현을 위한 정치적 기본 보장이고 경제, 사회, 문화 권리는 국민 공민권과 정치권 실현의 기본조건이다.

(3) 생존권과 발전권은 최우선적인 인권이다. 중국은 과거에 외부침략과 식민통치를 당하여 국가 주권은 상실되고 사회가 불안정했으며 인민은 도탄에 빠지고 아무 존엄도 없었다. 이로써 중국 인민은 국가의 독립이 없고 백성 신변안전의 보장이 없다면 역시 그 외 모든 인권은 보장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 중국 정부는 수십년간의 노력으로 국민 의식(衣食)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함으로써 국민 생존권 실현이란 대단한 성취를 이루어냈다. 하지만 중국 국민의 생활 수준은 여전히 서방 선진국과 많은 차이가 있고 거대한 인구의 압력과 인공자원의 결여는 중국 사회경제의 발전과 국민생활 개선을 제약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생



하북성상의현(河北省尚義縣)정부 계란과 우유 무상 급식



심장병 환자에게 무료 건강 검진

존권과 발전권을 가장 중요한 인권으로 삼고 이는 인권발전의 현실적 요구이며 최대의국민 이익이며 중국인권 보호와 발전의 필연적인 선택이다.

(4) **인권은 권리와 의무의 통일체이다.** 인권은 권리와 의무의 통일체로 중국 인권관의 기본 원칙 중 하나다. 중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는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동시에 반드시 헌법과 법률에 규정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개인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과 남의 합법적 자유와 권리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다.



농민 선거투표

(5) **사회 안정은 인권 실현의 전제이고, 경제발전은 인권 실현의 관건이며, 법치(法治)는 인권 실현의 보장이다.** 인권의 실현은 안정적인 사회정치 환경과 경제, 사회, 문화의 발전, 그리고 민주와 법률 제도가 없어서는 안된다. 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한다면 경제발전이 불가능하고 경제발전이 없다면 사회진보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의 진보가 없다면 인류는 자신의 운명을 장악할 수 없고 이른바 민주, 자유, 인권은 모두 공론(空論)일 뿐이다.



소수 민족과 함께

중국은 100여년간 전쟁이 잦아 가난하고 낙후했던 고난의 역사와 10년 문화혁명 내란의 교훈이 있었으므로 안정, 발전, 법치가 인권 실현에 중대한 의의를 마음 깊이 새겼다.

인권 실현에는 반드시 경제발전을 중심으로 해야 한다. 인권의 실현과 발전은 반드시 일정한 물질적 기초를 갖추어야 하고, 사회경제가 발전해야 국민도 이익을 얻고 국가도 안정을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중국의 인권 사업이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



원자바오 총리 이재민 어린이 위문

인권 실현은 민주와 법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국민들이 충분한 인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민주제도과 법률규정을 발전시켜 법에 의거하여 국가를 다스리는 법치국가를 건설해야 한다.

(6) **인권은 본질상 한 나라의 주권(主權) 범위내에 속한 것이다.** 중국은 인권 문제를 이용해 다른 국가의 내정을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 <UN헌장>에는 인권 추진과 보호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는 동시에 각국은 반드시 주권평등 원칙과 국가 주권 범위내에 속한 사항에 간섭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모든 국가가 인권 추진과 보호를 위해 관련 정치, 경제, 사회, 법률 제도를 확립하고 본국의 인권 발전 패턴을 선택하고 인권의 구체적 내용과 순위를 결정하여 인권 보호 정책 실시 등의 권리가 있다. 이러한 국가 행위는 어떤 방식으로든 외부간섭을 가할 수 없으며, 아니면 내정간섭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7) **한 나라의 인권 상황은 역사와 국정을 떠나서 평가할 수 없다.** 인권은 역사적 발전 과정임으로 각국 역사, 사회, 경제, 문화적인 제약을 받는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인권에 대한 평가는 그의 역사와 국정을 제쳐두고 판단해서는 안되고, 기존 어느 패턴이나 어느 국가나 지역의 상황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없는

것이다. 중국 정부와 국민은 인권의 쟁취, 보호, 개선을 위해 장기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역사적 성취를 이루어냈다.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다. 역사 및 경제 발전 수준 등 원인으로 중국의 인권 현황은 아직도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며, 인권 침범 현상이 아직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는 중국 인권 실태의 주류(主流)가 아니고 중국 정부와 국민은 자신의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8) **대화와 협력은 국제 인권 발전을 추진하는 유일한 수단.** 중국은 평등과 상호존중의 전제 하에 인권분야에 관한 대화와 협력을 전개할 것을 주장한다. 인권관은 한 국가나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의 산물(產物)임으로 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정상한 일이다. 국제 사회는 반드시 각종 정치, 경제, 사회 제도와 서로 다른 역사, 종교, 문화 배경의 국가의 인권관을 고려하고 존중해야 하고 각 국가도 평등, 상호존중의 원칙에 의하여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의견일치를 확대하며 차이점을 줄여야 한다. 인권 보호와 추진은 장기적이고 점차적인 과정이며, 각 국은 모두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이다. 자신의 패턴으로 다른 나라를 판단하거나 자신의 패턴을 강요하는 것은 절대 수용될 수 없고 합당치않는 행위이다.



제3회 북경 인권 포럼

## 2. 아이웨이웨이 사건과 중국 인권

아이웨이웨이가 탈세 등 경제범죄 혐의로 중국 경찰 기관에 구금되어 조사를 받게 된 이후, 한국의 소수 언론 매체와 기구가 조사한 바도 없이 서방 언론 매체에 따라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면서 아이웨이웨이 사건을 이용하여 중국을 공연히 공격하고 아이웨이웨이를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들은 아이씨의 가족과 외국 언론매체가 모두 아이씨의 공식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아이씨가 “실종”되었다고 보도함으로써 중국 정부를 “납치범”으로 비유·암시하였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중국 법원의 조사와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아이씨의 경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나 재판은 모두 불법이라고 하였다.

중국은 법치국가로 중국 법률은 13억 인구 대국의 기본 사회 질서를 보장하고 있다. 모든 중국 국민은 중국법률의 보호를 받고 있음과 동시에 중국 법률의 규제를 받고 있으며, 예외는 있을 수 없다. 사법권은 국가의 주권 범위에 속하고 있으므로 아이웨이웨이 사건에 대한 비판은 중국 법률 전반을 부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중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하지 않으며 중국 내정에 대해 거친 간섭이다. 그들이 말할 수 없는 음모가 아니라면, 이러한 행위는 그들의 중국에 대한 무지(無知), 오만(傲慢)과 편견 때문이라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옛말에 “역지사지(異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만약 어느 한국 국민이 한국 내에서 한국 법률을 위반하여 한국 경찰에 체포되었는데, 어느 중국인이 이에 나서 왈가왈부하거나 즉각 석방을 요구한다면 한국인으로써 당신은 과연 어떤 느낌을 받게 될 것인가?

중국은 수많은 한국 친구들에게 소수 기구나 개인의 일방적인 발언에 민지 마시기를 바라고, 직접 중국에 가서 돌아보고 중국 인들과 접촉해보며 진정한 중국과 현재 중국인의 인권 실태를 느끼면 당신은 자연적으로 공정한 결론을 내릴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중국길림(吉林)·동북아시아투자무역박람회(약칭:동북아박람회)는 중국 상무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길림성인민정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국가급 박람회이며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동북아시아 나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어 국제적인 지역종합박람회이다. 2005년부터 오늘날까지 동북아박람회는 이미 6차례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지난 6차례의 동북아박람회에서는 관람객 135만명, 세계 100여개 국가와 지역의 27만명 비즈니스맨이 참여하였다. 각국 차관급 이상의 정계인사 535명, 세계 랭킹 500기업들중 300여개의 기업들이 참

여하였고, 무역 거래액은 26.85억 달러에 달하였으며, 무려 1,278개 프로젝트 투자협력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민폐 총 6,240여억원의 투자액을 유치하였다.

6년 동안의 신속 발전을 거쳐 동북아박람회는 동북아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그 이름을 알리고 있고 영향력도 나날이 커지고 있으며, 투자와 무역역도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각종 포럼과 경제무역 맞춤형 행사들이 성공적 개최하였으며, 동북아와 세계 각 국가 간의 고위급 교류의 대화무대가 마련되어 국내의 정계 인사들과 기업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7회 중국길림·동북아투자무역박람회는 2011년 9월 6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장춘(長春)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박람회는 “창신(創新), 특색(特色), 실효(實效)”를 원칙으로 상품 무역, 투자협력, 회의포럼과 문화교류 등 내용을 위주로 하여 중국동북지역 “12·5” 진흥기획전시관, 홍콩상품관, 대만상품관, 동북아국가상품관, 식품의약품, 과학기술전자정보관, 투자협력관 및 7,000㎡의 실외 전시구역을 설치하여 동북아를 비롯한 전세계의 명(명품), 우(우수상품), 신(신기술), 특(특색), 고(첨단) 상품을 전시함과 동시에, 제 5회 동북아 경제무역협력 포럼을 비롯해 고수준의 회의포럼 및 풍부하고 다채로운 문화교류 행사들이 거행할 것이다.

동북아박람회 홈페이지  
www.neasiaexpo.org.cn.

##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주소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19-6번지 (우 503-230)

중국 비자, 여권, 공인증 문의 : 062) 351-8857

영사 면담, 방문 예약 : 062) 385-8874

영사 보호 담당 : 062) 385-8873

팩 스 번 호 : 062) 385-8880

홈페이지 : <http://gwangju.china-consulate.org/kor/>

총영사관 소식지 홈사이트

<http://gwangju.kr.china-embassy.org/kor/zt/kanwu/>

